

# GRACE 선교소식

2025년 1월 GMI-GKC 선교사 현황: 62개국 335명 (자체 파송 74%)

##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시작과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잠언 25:25),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잠언 15:30)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이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주 남가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건물이 전소되고, 인명 피해와 더불어 수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디모데전서 2:1-2) 비록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한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



###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CUBA AFA 10기: 2/2-2/8
- 은혜동산 말씀 축제(명성수양관): 2/17~2/22
- 인도 TD: 2/25-2/27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캄보디아

### 김동규/이승향 선교사

킹덤 드림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더 그레이트 네이션 족, 하나님에 나라 건축자로 리더십을 함양시키고 요셉 다윗 다니엘 등 성경의 리더십을 통하여 꿈을 이루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찬양, 기도로 영성 훈련을 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을 진행합니다. 참석자들이 큰 비전을 갖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24명의 학생들이 선교사와 목사가 되겠다고 훈련 중에 일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몰라서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괜찮다고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으심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

도와 찬양으로 모두 오순절에 임한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석한 한 여학생은 태어나서 12년 동안, 말을 못 하였는데, 방언 기도와 함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향문이 없어서 옆구리로 소·대변을 보는데 수시로 나와 냄새가 나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 집회하는 주간에는 밤 11시에만 대변이 나와서 아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 제1기 신학부 졸업식 (2024년 11월 27일)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부 제1기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목회자 반 신학 과정을 개설하고, JWM교단과 선교회 그리고 WATS(세계 신학교 협의회)의 협조로 제1기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에 캄보디아에 들어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였지만,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학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에 13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 제1차 목사 안수식 (2024년 11월 27일)

190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식을 하였을 때 선교사들의 감회가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신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대부분 현재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학 공부 중에 모든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10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해 힘써주신 유선교 목사님, 김장환 목사님, 조홍범 목사님, 박효순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M국

곽OO/엄OO 선교사

## 징병제 시행

쿠데타 정부에서 내전으로 인한, 대응 인원 충당을 위해 기존 자율제였던 군복무를 군부에서 징병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각 마을 책임자들에게 인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마을에서 돈을 걷어 지역 해당 군부에게 전달하면 적용을 넘어가는 방법



을 택하거나 낙후된 시골에서 사람을 사서 마을에 할당된 입영자들을 대체하는 현상도 일화되고 있습니다.

인레호수 인레의 아침 수상선교센터 마을에서도 5일에 한 번씩 각 가정당 돈을 정기적으로 걷어서 마을 책임자가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숫가 디베라의 아침 선교센터 마을에서도 군부에서 마을 책임자에게 청년을 선정해서 보내던 돈 500만짜 (약 200만원)을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 책임자는 마을 주민 중 누구를 지명할 수 없기에 마을 주민 가정당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마을에서 외국인 시설인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이 와서 불안해하는 마을소속 스텝들과 상의한 후, 약간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청년들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지지 않도록, 신앙이 심어져서 자신들의 삶의 비



전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큐티 시간

20여년 우상의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며 학교에서 불교를 학업처럼 접하며 살아온 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고 나아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되고 복음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I국

기OO 선교사

신학기 감사 예배(10월 6일)를 드렸습니다. 120여명의 학생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신학기 감사 예배를 통해 교회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에 잘 정착하고 신앙 생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종교 교육 연계 예배(11월)

학교마다 종교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많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종교 과목 현장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또한, 학교 안 기독교 단체 리더 교육을 현지 사역자가 시작하였는데 담당 교수가 아이들의 변화가 조금씩 보인다고 나누었습니다.



다.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예배를 뒷전으로 돌 때가 많은데 이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학교가 신앙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하며, 학생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기도해 주세요.

## 장학 사역

매월 첫째 주 주일, 같은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지만 모임을 통해 그들이 지속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다짐하며 행하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양육 및 제자훈련

기숙사 친구들과 공동체 리더들 양육은 매주 월요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9일이면 D3 책을 마치게 되는데 2025년에는 성경을 배우고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지 사역자들도 대학생 공동체에서 D3 책으로 양육과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실천적인 배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배우고 익힌 내용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제자로 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록 기도해 주세요.

## 성경 통독

온라인 성경 통독과 별개로 2025년 현지 사역자와 함께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매주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 통독을 하는 시간을 계획 중이며 학생들 방학(2월 중)에 모여 집중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학생들의 삶을 비추고 이끄심을 학생들이 깨닫고 성경 통독을 사모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온라인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사역자들과 학생들도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모임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기에 기도 모임이 소중합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한국인 선생님들 기도모임에는 자주 참여하지 못하지만 현지 사역팀과 매주 목요일 기도모임을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근 장소를 허락해 준 곳 주변 사람들이 모임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현지 사역자 집, 저의 집 등 장소를 옮겨가며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전 장소 주변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교회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필리핀

김적용/박영란 선교사

할렐루야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월 23일 필리핀 사역지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그동안 못한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더 힘쓰고 하나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미국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이 필리핀 사역지를 방문하여 11월 29-30일에는 앙헬레스지역에서 6차 인카운터 수양회를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진행하였고 12월 2~5일에는 저희 Phil-Kor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

전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전도를 직접하고 결신자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하므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로 참가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후속조치로 지속적인 양육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참가자들은 물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고 이제 교회



가 해야 하는 전도에 더욱 힘쓰기를 원하는 간증들이 넘침에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인카운터 수료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2. 비전캠프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여 좋은 전도자와 지도자가 되도록
3. GMI 필리핀 선교사들의 협력 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4. 2025년 사역 계획을 잘 세우고 헌신자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5. PHIL-KOR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6. 현지 목회자 재교육과 필리핀 교회 각성을 위한 119 기도회 사역을 위해서
7. 아들 김한음 캐나다 시민권 시험과 머느리의 학교 근무 및 자녀 연기를
8. 김적용, 박영란 선교사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선교사

### 정부 교도소 농업 시범장 우물 성공 검사

8월 26일 돌레에 있는 교도소 농업 시범장 우물을 파 성공했습니다. 죄수들이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 멀리서 날마다 물을 길러 오느라 땀별에 힘들었는데 농장 안에 우물을 파주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 젠델레 병원 우물 성공 감사

10월 4일 젠델레 병원은 교도소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세운 병원입니다. 우물 파는 곳의 땅은 모두 돌이라 우물 기계가 두 번 부러져서 다시 고쳐서 파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물 기계가 고장이 나면 부속품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 성공했습니다. 우물을 파도록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 잔지바르 한인교회 담임목사

9월 22일 잔지바르 한인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담임목사님이 안계셔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부탁으로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 매주 카스테라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고, 김치도 가끔 만들어 나눠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외 동포청 후원 한국 문화 알리기 경연대회

10월 5일 잔지바 한인회, 현지인 초청 한국문화 알리기 행사를 했습니다. 한인들께서 현지인들과 함께 준비한 한국 공연은 태권도, 동요와 아리랑 등을 불렀는데 저희는 어린이 태권도와 12명의 선생님들이 한복을 입고 진도아리랑 그리고 백만 송이 장미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한복이 아름답다고 칭찬을 했는데, 공연을 본 현지인들이 언제 또 한국 공연을 하는지 보고 싶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 돌레 교회 우물 성공 감사

10월 11일 돌레 교회 우물 성공했습니다. 24년 된 기아봉고 1톤 트럭에 우물 기계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나 갑자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올 초에 전도 집회 가던 중 차에 불이나 연기를 마셔 위험했던 일이 생각나 빨리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에 연기

가 차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연기가 가득했는데 조수석 문이 고장나서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한참 당황했습니다.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생각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네 주민들이 우물물을 마시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약성경통독집회

11월 12-20일 국가시험을 보는 날 기숙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모아 신약성경 통독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약만 30독이 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1년이면 구약 2독 신약 5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유고시를 대비해서 오래된 선생님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하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중병이 나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로 바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 캄보디아

김영대/조정아 선교사

## 새소망공동체

26호 꾀미어새소망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썩큰 목사가 개척한 교회로 허물어져가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구노회 남전도회연합회(회장: 김천환 장로)의 후원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썩큰 목사의 성령 충만함과 꾀미어새소망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새소망방과후 학교 & Light n Salt 장학생

각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헌신하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캄보디아를 가르치고 노트북이 지원된 곳에서는 MS Of-



fice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자원봉사였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격려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쓰고 남음이 있어, 더 많은 곳에 지원하길 소망합니다. 47명의 빛소금 장학생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기술 공부를 하고 있는 로왓은 지방에 자신을 지도해 주신 선교사님과 안경팀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검안을 하고, 안경을 나눠주며 성장해 나가고, 스테이리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했으며, 스레이빠어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학생들이 각 교회를 섬기고 교사를 봉사하며 교역자들을 잘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 성경통독 및 암송훈련

지난 9월에 열방빛선교회(최광목사)와 함께 캄장신에서 듣새기(듣고, 새기고, 기도하자) 운동 집회를 2주간 동안 가졌습니다. 150여명의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잊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맡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암송운동을 11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10절씩 암송하고, 이제 60절을 암송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시간에도 말씀을 되뇌며, 또 새로운 구절을 암송하는 모습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

주에 기록하는 듯합니다. 학업태도가 달라지고, 자신도 은혜를 받아 저를 자신들의 교회에 초청하여 암송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듣새기운동 특히 통독과 암송이 캄보디아 전역에 퍼져나가 이 땅이 말씀으로 흥왕케 되길 소망하며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캄장신은 개강예배와 함께 2024-2025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들이 잘 적응하여 훈련되어 참된 리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과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만나식권(1매 1500원) 후원이 계속 이어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 올네이션 스쿨

아내 조정아선교사가 유치원과 더불어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담당하고 첫 고등학교 졸업시험이 있었습니다. 고3 전원이 합격하였고, 1명이 A를 받아 총리 장학금을 받아, 원하는 대학교 4년 전액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연합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9명이 출전하여 1등을 포함하여 6명이 시상을 받아 학교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매일 큐티와 매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여 크리스찬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 태국

임진섭/양윤희 선교사

## 교회 예배처 이전 (8월 3일)

지난 교회 장소가 좁아서 20명정도 되면 이사 간다고 처음 개척 시 선포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0명정도 예배인원이 되어 장소가 좁다는 생각을 하였고 이전을 위해 24년 초에 성도들과 함께 이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자 이야기하고 계획은 10~11월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8월 초에 이사를 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현재 1층은 예배 처소로 2층은 저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교회사역 이야기

### • Grace Gospel(G.G/전도프로그램)

2월 중 전도프로그램인 G.G 임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 • 제1기 인카운터(4~6월)

새신자 양육프로그램인 인카운터를 4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까지 9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저녁에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17명이 참여하고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 • 일대일 제자 양육 시작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각각 2명씩 양육시작 현재 진행중)

### • GTD 사역 (10월)

방콕에서 10시간 거리에 있는 나콤폐놈 주에서 1기 태국TD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교



회에서 팀멤버와 캔디로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설립 2주년 감사예배 (11월 10일)

아웃리치와 단기선교로, 방분으로 방콕은혜 교회에 와 주신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증문 L국

## OO 목사 사모

이 간증문은 L국 O시에서 순교하신 OO 목사님의 사모님이 로고스 대학에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사모님의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습니다. (2024.09.29)

O시의 기독교 역사는 저희 가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O시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15년)에 갇히면서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019년 저희 남편이 O시 지역 교회 대표가 되면서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하나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는 산 넘고 물 건너 몇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하루 종일 집도 없는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개척한 교회가 106개입니다.

교회 부흥과 복음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2020년부터 경찰이 저희 부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전 경찰이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신앙 포기 각서를 써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만약 너희가 신앙 포기 각서를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늘어나면, 우리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협박에도 우리는 신앙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순교하기 6개월 전 수상한 사람이 저희 집 주변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장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순교하기 한 달 전 쯤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사과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먹을까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사과를 먹지 말라'는 음성을 주셔서, 먹지 않고 잘라보니까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교 일주일 전 쯤에 동네 이장(나이반)을 우

연히 만났습니다, 이장이 "조심해! 지금 경찰 중에 키 큰 사람 한 명과 키 작은 사람 한 명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이장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그냥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언젠갈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이 애들 잘 키우고, 교회를 잘 지켜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순교하던 그날, 총회 캄O 목사님과 17명의 목사님들이 건축 중인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모임이 다 끝나고, 우리 부부는 캄O 목사님을 기차역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 8시 5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개들은 벌써 독살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닭을 보러 갔습니다. 그 때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 누가 찾아왔어!" 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O 있냐?"고 물었습니다. 보통은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아O' 혹은 '아O OO'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O'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누군가가 'O'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목사님에게로 갔습니다. 그 곳에는 키 큰 사람이 복면을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OO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OO이다 하니까, 그는 목사님을 자신의 몸쪽으로 바짝 붙이고 옆구리에 총을 쏘고, 입 안에 총을 또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총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나와의 거리는 5m 정도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총을 맞고 목사님의 몸에서 피가 막 솟구쳤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목사님이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순간 의식

을 잃었고, 정신을 차린 후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을 때, 총을 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총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집 밖에서 오토바이로 왕~왕~ 공회전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에 남편을 태우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고 11시경 집에 도착했는데 나이반(이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남편이 지금까지 했던 거, 멈추지 말고 계속 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6개 교회의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경찰은 어마 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지사가 죽어도, 유명 인사가 죽어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곳에 함께 있던 사람이 "아O OO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이제 알겠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3주 후 교회에서 설교와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비밀 경찰도 있었습니다. O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남편은 정부가 죽인거야.", "당신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였다. 예수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 아이들을 안전한 수도에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저는 O시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할 것입니다.

# 우리가 살고 있어야 할 곳

<1분단상 135-1월호>

- 김대규 장로

새해가 되었다. 모든 이가 올해의 꿈과 목표를 세웠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새 꿈에다가 이미 어떤 이들은 그 길로 가고 있겠지만 누구나 추구해야 할 한 가지 목표를 더 붙인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만 할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올 한해를 온전히 현존하는 하나님왕국에서 살자는 이야기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함께하여 영원한 하나님나라에서 살고자하시는 범주안에 있는 우리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로지 순종이다. 말씀과 함께 인본주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현대교회에서 교회 개체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대부분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갈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당연한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이에 갈등을 느끼고 말하는 것이 이질적으로 보인다면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걸까.

올 한 해를 개체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자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 교회라는년부터 왕 노릇하며 산다. 공동체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직분과 관계없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보다는 세상의 모습이 역역하다. 가정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모두가 자기의 소신대로이다.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는 느낌은 과장일까. 이런 나의 왕국을 버리자는 의미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는 독백이자 절규를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은 특별하다. 만민 중에서 골라내어 내 것, 나의 소유이라고 선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레11:44,19:2, 20:26). 이때 소유는 “세굴라(segullah סְגֻלָּה)로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배를 뜻한다(출19:5, 말3:17, 시135:4, 사43:3,4).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다루어진 존귀한 존재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손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오직 귀히 여기셨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이라는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 놓으셨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과 희생과 사랑인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구약(출19:5, 6)을 인용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 이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로 하나님을 순종으로 섬기며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올바르게 변화되도록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혹시라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택한 자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안에 살아계셔야 하는 예수님 모습(갈2:20)보다는 내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존하는 하나님나라보다는 세상에 젖은 삶의 모습의 의미는 무엇일까.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은 웬일일까. 정도로 가야할 것을 알면서도 풍조에 따르는 비굴함은 무엇일까. 이런 모습이 우리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일게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존귀한 자답게 우리는 세상과 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드렸다(요17:16, 17).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점이 있다. 세상과 악이 너무 가증하여 하나님께 부탁드릴 정도라면 우리는 더욱 세상과 악에서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는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존한 자가 될 때 이루어진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진리 안에서 삶을 이루어갈 때 이루어진다.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는 달리 매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 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이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엡4:23). 하나님으로의 갱신이다. 이어지는 새로움은 세상을 뛰어 넘어 믿음으로 세상과 악을 멀리하는 능력도 함께 하게 한다.

고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답게 모두가 매일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갱신되어 가는 한해가 되기를 갈망한다.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태국 임진섭/양윤희 선교사

1. 방콕 은혜 교회(Bangkok Grace Church)를 위해: 성도들의 믿음이 잘 심어지고 성장하도록
2. 25년 사역과 계획된 사역을 위해: 제2기 인카운터, 일대일 제자양육(양육자코스, 2기 제자양육), GTD사역, G.G전도훈련, 아웃리치팀사역 다수
3. 저희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4. 가족의 건강과 삶을 위해  
 임진섭 선교사: 체력회복과 여러가지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양윤희 선교사: 어깨와 손목이 많이 아픈데 잘 회복되도록  
 하엘: 학교생활과 학습에 잘 적응하고 잘 이겨내도록

## 미국 기OO 선교사

1. 교회 사역을 위하여: 예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예비될 수 있도록  
 2025년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쁨으로 사역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예배 공동체 되도록
2. 영어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하며 학생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인 매월 3만원)
4. 인도네시아 다약 종족군을 위하여
5. 기숙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들을 예비해 주시도록
5. 저와 현지 사역자들(리오, 미민, 게랄드, 납도, 벨라)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 N국 HOO 선교사

1. 2025년 1월에 시작하는 GG (Grace Gospel) 3기 줌 클래스
2. GG program 을 시작하는 교회들의 성장
3. GG 2단계 코스 (QT, Leadership Training, GE, GF) 준비와 시작
4. 2025년 부탄 비전 트립
5. Heaven's Melody Nepal 청소년 음악, 전도훈련 사역
6. 2025년 가을 비신자 초청 Grace Festival



## 캄보디아 김광석/이영미 선교사

1. 쓰나미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현지 사역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우리의 첫 열매인 찜란이 직장문제로 멀리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건강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되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선교사

1.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2. 기독교 아이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이슬람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교육부에 고발당해 10번 이상 감사 받고, 예배 시간에 방송국 카메라까지 들고 와 찍게 되었습니다)
3. 우물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4. 중학교 건축과 보수 공사가 사고 없이 진행되고 부족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캄보디아 김영대/조정아 선교사

1. 세워진 모든 새소망교회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충만케 하소서.
2. 방과 후 학교의 교자재(화이트보드, 노트)와 교사 후원비가 채워지고 빛소금 장학생(현재 47명)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계속 확장되게 하소서.
3. 틈새기 운동이 확장되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도하여 캄보디아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4. 감장신의 교강사와 학생들이 성령충만케 하시고, 만나식권 후원이 넘쳐나게 하소서.
5. 올네이션학교를 섬기는 조정아선교사와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가르쳐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소서
6. 저희 가정 김영대, 조정아(성훈, 성빈) 모두가 주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 받게 하소서.

## ▶ 미국 GOO 선교사

1. 비자 문제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제가 텔아비브에서 온 편입생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국을 떠나 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경찰 관리들은 미국에서도 비자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리스 직원들이 제 사례와 관련해 내무부와 몇몇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디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재정적 필요: 학비와 월세를 위한 재정적 공급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3. 미래 사역: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4. 학교와 언어 공부
  - 언어 학습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 현재 배우고 있는 언어: 고대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 우람: 아랍어. 세 가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 선교부 광고

###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파나마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3/24-3/27)  
문의: 정민 집사 (714-900-4194)  
TM: 1/16, 1/30(목), 웨딩채플, 7pm
- 인도GIGL 9기 (2/21-3/1)  
TM: 1/14-2/18, 웨딩채플, 7pm  
S/L: 한기홍 목사, 렉터: 현윤호 집사,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페루 AFA 20기 (1/27-2/2)  
S/L: 안영식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951-203-7937)
- ElSalvador GE3기 (1/29-2/2) (GE1/30-2/01)  
S/L: 권상욱 목사  
렉터: 모정준 집사  
문의: 송영준 집사 (714-213-5006)
- CUBA AFA 10기(2/2-2/8) TD, 신학교입학식, 교회방문  
S/L: 한기홍 목사  
렉터: 케빈 김 집사  
문의: 로이 김 집사 (213-999-1737)

• 터키 난민 인카운터 1기 (3/13-3/23)  
선착순 12명, OT: 1/5, 5pm 119호  
문의: 김태형 집사 (213-393-3215)

###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 In loving memory of Missionary Yoo



(구소련&이스라엘 선교사)



사랑하는 유익경 선교사님,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세요.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Viewing: 2025. 01. 16. @4pm  
Sunnyside Mortuary.  
(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천국환송예배: 2025. 01. 16. @6pm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 본당

하관예배: 2025. 01. 18. @11am  
Rosehill